

즐겁게.. 일하는.. 것만큼.. 행복한.. 건.. 없죠

봄

의 기운이 온몸에 퍼져 기분 좋은 나른함을 만들고 있는 오후. 이런 날이라면 잠시 게으름을 피우며 나른함을 즐겨도 좋을만, 어느 때와 다름없이 컴퓨터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휴대용 저장장치와 멀티미디어 제품, 네트워크 솔루션 제품 등을 개발·생산하는 정소프트의 솔루션 사업팀이 그 주인공들이다. 자유로운 복장이지만 일을 할 때는 프로의 모습이 물씬 배어나는 그들의 주된 업무는 네트워크 통합 관리 솔루션 개발. 98년도에 출시되어 각종 학교나 기업에 널리 쓰이고 있는 '하드 보안관'을 비롯해 요즘은 데스크톱 관리 시스템과 시스템 복구 솔루션 등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 팀은 평균 나이가 30세 정도로 젊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각 개인마다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죠. 게다가 저희 솔루션 사업팀은 회사 내적으로 다소 분리되어 있는 특성 때문에 분위기도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는데 필요한 조직력은 어느 팀 못지않게 탄탄합니다.”

황희근 팀장의 말을 증명하듯이, 솔루션 사업팀의 컨셉은 ‘직책은 있되 직급은 없다’란다.

이들은 유난히 팀 단합대회를 자주 연다. 그리고 점심시간이나 일과가 비교적 일찍 끝나는 날이면 어김없이 농구나 족구 같은 운동을 함께 즐긴다. 누가 시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마음이 맞아서 하는 거란다.

이렇게 팀 분위기가 자유롭고 정이 넘치다 보니 다른 팀들의 부러움에 찬 시선도 많이 받는단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서로의 혼삿길을 걱정할 만큼 분위기가 좋으니, 이쯤 되면 그 부러운 시선을 보내는 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것도 같다.

“이렇게 좋은 팀에 속해 있다는 게 너무나 행운입니다. 그만큼 구성원 하나하나가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지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한 식구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 정소프트 솔루션 사업팀의 가치를 높이고 싶습니다. 물론 회사 매출에도 큰 몫을 해야겠죠.”

이성경 대리의 말처럼 마치 작은 섬에 모여 오순도순 함께 살고 있는 듯한 정소프트 솔루션 사업팀. 그들에게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섬’은 어떤 의미인지 들어보았다.



흔

히 사람들은 마라톤을 인생에 비유한다. 42.196km라는 긴 거리를 달리면서 심장이 터질 정도로 숨이 찰 때도 있고, 그 순간을 넘기면 무아지경의 희열도 느끼는데, 그런 과정들이 사람의 인생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 회사로고가 새겨진 종이폭지는 처음 하프코스마라톤을 완주하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다.

언어교육과 문자·언어처리 솔루션을 개발하는 '언어과학'에서 사업이사를 맡고

있는 장원철 이사가 마라톤을 시작한 것은 2001년. 평소 운동을 좋아했지만 바쁜 회사일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 '운동도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시작한 것이 마라톤이다. 원래 뛰는 것을 좋아하고 한 번 시작한 것은 꼭 끝장을 봐야하는 성격이라 첫 해부터 동아마라톤 하프코스에 도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의욕에 비해 연습량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 때가 겨울이라 연습을 하지도 않았고 대회 나흘 전에야 집 앞 학교 운동장에서 30분짜리 연습에 들어갔다. 옆친 데 달친 격으로 대회 하루 전에는 감기에 걸렸다. 자만심이 너무 컸던 탓일까. 10km가 지나면서 숨은 턱까지 차올랐다. 그는 당장에 뛰는 것을 그만두고 싶었다. 그러나 그를 끝까지 지탱해준 그 어떤 힘이 있었다. 바로 등에 붙은 회사로고가 새겨진 종이폭지였다.

“저는 쓰러질 수 있어도 언어과학이 쓰러진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더군요. 제가 속해 있는 회사이기도 했거니와 대기업의 로고를 붙이고 뛰는 사람들보다 훨씬 자부심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뛰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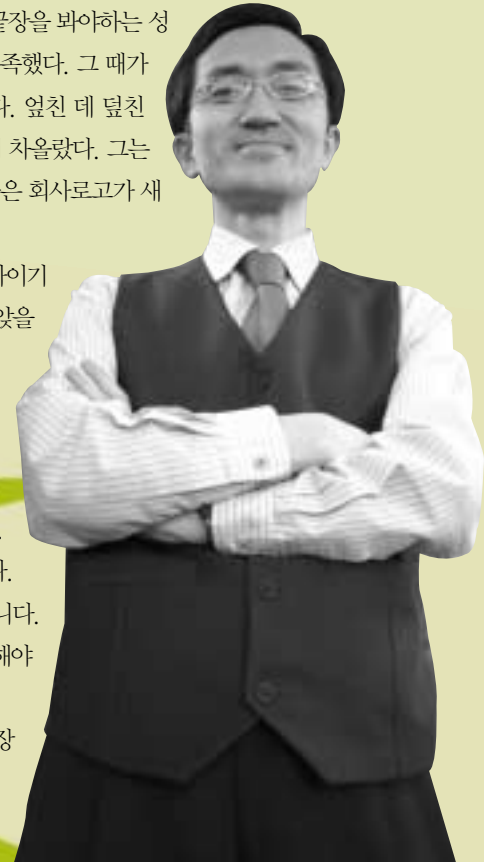
그의 회사에 대한 애정은 그 후 참가한 여러 대회와 처음으로 풀코스에서 도전한 2002년 동아일보 국제마라톤 대회에서도 완주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의 등에 붙어있던 '언어과학'이라는 로고는 그에게는 하나의 부적임과 동시에, 임직원들이 그에게 주는 응원이었던 것이다.

장원철 이사는 마라톤 완주는 결코 운이 아니라 그만큼 연습이 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마라톤 풀코스에서 35km를 지나 골인 지점까지 뛰다 걸다를 반복하면서 그가 느낀 점이 있다고 한다.

“단순히 참가 횟수를 늘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철저히 준비를 했느냐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 한정된 시간 속에서 매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일 년에 두세 번 정도는 꼭 풀코스에서 도전해 자신이 세운 목표 시간을 돌파해 보고 싶다는 장원철 이사. 앞으로도 그의 등에서 필력일 '언어과학' 부적의 힘을 기대해 본다.



TIP

장원철 이사가 추천하는 경치 좋은 마라톤 코스

- 중앙일보서울마라톤대회 코스 → 잠실종합운동장을 거쳐 성남 하오고개 입구를 돌아오는 풀코스. 11월 초순에 개최되는 대회라 코스모스 만개한 이색적인 서울 도심을 달릴 수 있다.
- 춘천의암호마라톤 코스 → 춘천의 대표적 마라톤 코스. 춘천종합운동장을 출발해 의암호, 춘천댐을 돌아오는 코스로서 계절마다 특색 있는 장관이 펼쳐진다.



Venture in 벤처인

→ Funny Venture ©© 언어과학 장원철 이사

42.195km..마라톤은..인생이다